

보도 일시	2022. 3. 22.(수) 조간 2022. 3. 21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3. 21.(화) 06:00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	책임자	과 장 이성희 (044-200-5670)
		담당자	연구관 임상욱 (044-200-5675)

우리나라 동해 바다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롭게 발굴

- 2022년 다양한 해양생물 총 950종 2,571점 확보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022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‘해양생명자원조사’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(2,571점)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양양, 강동 등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,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양척추동물 103종, 해양무척추동물 551종, 해양식물 155종, 해양원생생물 65종, 해양미생물 76종 등 총 950종 2,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 이 중 100종은 그 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이며, 엑사칸토마이시스류(*Exacanthomysis* sp.) 등 37종은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으로 학계 보고를 통해 신종으로 등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특히, 해양미세조류*의 일종인 오돈텔라 아우리타(*Odontella aurita*)는 오메가-3**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를 출원하였고, 염도 변화에 내성이 높은 버클리야 루틸란스(*Berkeleya rutilans*) 등 향후 생리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다수 확보하였다.

* 대부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물

**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으로 혈행 및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소재

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, ‘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(MBRIS, www.mbris.kr)’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실물자원을 분양하고 있다.

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*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‘해양생명자원조사’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,94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. 아울러, 올해 2023년에는 감포, 일광 등 6개 연안 해역과 홍도(경남), 남형제섬 2개 섬 해역 등 동남해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.

*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자원 보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은 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함을 규정(17.8월 국내 발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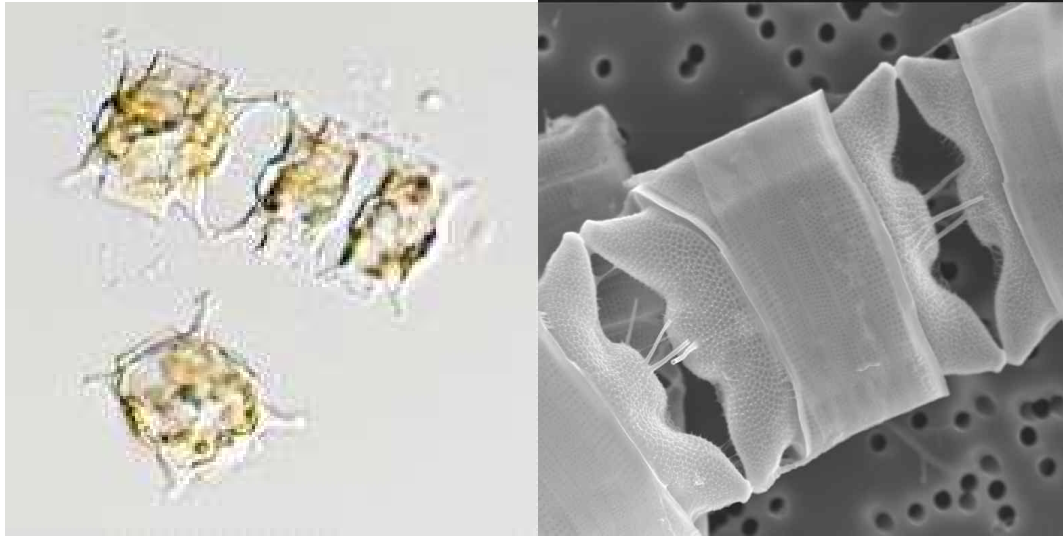
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“해양생명자원은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	책임자	과 장	이성희 (044-200-5670)
		담당자	연구관	임상욱 (044-200-5675)
<담당부서>	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실	책임자	실 장	백경화 (041-950-0810)
		담당자	연구원	김경미 (044-950-08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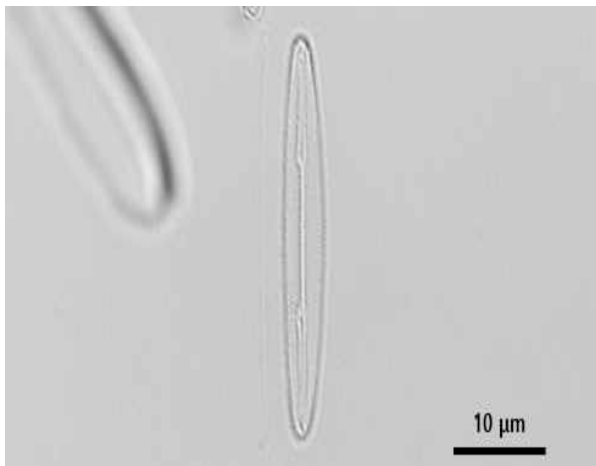
참고

해양생명자원 주요 확보 종

□ 해양생명자원 주요 확보 종



오돈텔라 아우리타(학명, *Odontella aurita*)



버클리야 루틸란스
(학명, *Berkeleya rutilans*)



엑사칸토마이시스속, 신종후보
(학명, *Exacanthomysis* sp.)